

서울자유시민대학, 78개 온·오프라인 강좌... 11월 2일 2차 개강

각 대학의 특화영역을 살린 '대학연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대사관연계'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오는 11월 2일부터 하반기 2차 개강을 진행한다.

78개 강좌는 시민대학 본부 및 권역별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7개 학과 정규 교육과정을 비롯해, 서울 소재 각 대학의 특화영역을 살린 대학연계 시민대학, 국가별 역사·문화·예술·외교정책 등의 강의와 대사관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등을 운영한다.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주한 대사관과 연계해 글로벌 문화와 경제 교류, 국제 정세 등을 소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안동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제1회 안동호반 그란폰도' 개최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며 안동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제1회 안동호반 그란폰도'가 오는 11월 1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하는 등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영호기자

이낙연 당대표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적극 노력"

이 대표 "5·18 특별법 당론 추진"... "5·18묘지 2묘역 확장사업 적극 지원"



이영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를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5·18국립묘지 제2묘역 침수 대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청을 찾은 이낙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정사업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방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광주 시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전남 이전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서울시, 발길 뜬했던 선유도공원 노후 온실 도심 속 작은 식물원으로 재탄생

관엽식물·수생식물·열대식물 등 총 73종, 2015주 새롭게 식재, 기반시설도 정비

한강과 양화대교에 걸쳐있는 작은 섬 '선유도공원'을 걷다보면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시설이 조성돼 있었지만 시민 이용률은 낮았다. 서울시는 10개월에 걸친 리모델링을 통해 관엽식물, 수생식물, 고사리원, 열대식물 등 총 73종, 2,015주의 식물을 새롭게 심었다.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선유도공원 내 200여종 이상의 식물을 활용하는 식물가꾸기, 체험학습, 식물상담 등 다양한 정원활동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진도군 공고 제2020-723호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 공고

다. 제2순위 : 본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라)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조건에 동의한 자

나. 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전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와 용지분양 계약서 및 신기지구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신청 유의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도군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플랫폼 배달노동자정책방향과제안' 열띤 토론 개최

지난 10월 22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 공동주최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여러 의원뿐만 아니라 道 관련 부서 공무원, 지역 배달사업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현황과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윤중 연구원은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2.0~2.3%

수준으로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0·60대의 고용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특히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은 경제적 곤란이나

타 업종 구직 실패 등으로 선택한 일자리로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력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이 11.8% 수준이나 10년 이상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은 64.3%로 나타나고 있어 타 업종은 경력이 쌓일수록 숙련도 증가 등으로 위험이 낮아지는 데 반해, 배달노동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언제나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들 배달노동자들의 1/3은 일평균 10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하는 전업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특히 가장 위험한 운행행태를 보이는 20대 이하에서 가입률이 최저로 나타나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과제”라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은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와 관련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장조사, 주요 이슈 사례연구, 공공배달업 연계, 공공일감 창출, 이륜차 수리점 인증,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공제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며 “플랫폼 노동 전담부서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구체적 정책을 시행하는 유일한 지자체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인제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최근 배달산업 최초의 사회적 합의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을 성공리에 마친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나 노사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추진했기에 성공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노사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때 더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달대행업체 ㈜링크플러스 강정훈 대표는 배달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용·산재보험이라 강조하며 “배달대행사 및 배달대행라이더의 세무처리 기준과 관련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달노동자 스스로의 직업의식 제고와 사회적 인식개

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이은열 부장은 “산재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

단도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 노동국 김규식 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에 관한 담론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실행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하며 “경제노동위원회와 노동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상찬기자

김은혜 의원 “임대차3법, 헌법에 위배”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위배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23일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 주대입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과피보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같이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에 상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주고 있다.

임대차3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차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은혜 의원은 “헌법에 배치되는 조리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의회 내 최대 21명의 도의원을 위임으로 하는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의 시민단체 및 각종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독도의 지리와 역사, 영토주권과 외교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 홍보와 교육 문화재로서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자료 발굴과 보존·전시 독도 인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 일본 경제 침탈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국제교류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경기도 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 동해표기운동 캠페인 지원 등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인 독도 수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비록 독도가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1,370만 경기도 도민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 들여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평생교육국, 농정해양국, 환경국과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독도의 정책 역량을 총 결집해 종합적인 독도수호 방안을 마련·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며 특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특위는 총 21명 이내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6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찬기자

신정현 의원,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본격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안’, ‘경기도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3일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해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증진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

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용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며 현행 1~6개월의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진 중인 조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경기도가 아울러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해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재은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상찬 / 사장 박두석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경.가5007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FAIR TRADE 공정무역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FAIR TRADE TOWNS KOREA

-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진 노을과 함께 바라보는 마음속 진실

정서진아트큐브 2020년 세 번째 기획전시 '퍼블릭 드로잉 프로젝트: 녹색광선 Le Rayon Vert'



인천서구문화재단은 오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정서진아트큐브의 2020년 세 번째 기획전시 '퍼블릭 드로잉 프로젝트: 녹색광선 Le Rayon Vert'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림책 작가 하영과 인천시민 24명이 함께하는 전시로 오일파스텔을 사용해 정서진의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보는 공공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전시하게 된다.

지난 한 달간 시민들은 드로잉 키트를 집으로 배송받고 작가가 친절하게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방법과 팁을 전수하는 영상 강의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집에서 그림 수업을 듣고 직접 그려 보는 과정을 경험했으며 그 경험을 전시물로 내놓게 된다.드로잉 수업의 이름이자 전시명인 '녹색광선'은 주일 배리의 동명소에서 모티브를 얻은 에릭 로메르의 영화 '녹색광선'에서 따왔다.

녹색 광선은 해님이 직전 수평선과 맞닿은 태양이 잠시 녹색으로 물드는 희귀한 현상이다.이것을 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은 물론 상대방의 마음속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현상이다.

특히 정서진아트큐브가 해님이 유명한 정서진 광장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정서진의 해님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녹색광선을 찾아보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진실들을 드로잉해보는 이번 프로젝트

는 드로잉 수업에 참여한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시를 감상하러 온 시민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그림책 작가 하영은 서구에 거주하며 서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작가로 '산책의 순간들', '걷는 마음' 등 산책하며 본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책을 출간했다.현재 인천서구 가정동 서점 안착에서는 하영작가의 드로잉클

래스와 그림책 원화전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하영작가는 이번 정서진아트큐브 기획전시3 '퍼블릭 드로잉 프로젝트: 녹색광선 Le Rayon Vert'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온라인 드로잉클래스를 진행했고 클래스를 통해 완성된 시민들의 작업물과 하영작가의 작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를 꾸려나갈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보령시, 제24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 대표 축제에 걸맞은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 제시 기대

보령시는 '일상탈출 보령머드축제'를 주제로 제24회 보령머드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독창적이고 세련되면서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축제에 성장한 머드축제에 걸맞은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접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참여방법은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출품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작품실사 출력본을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출품작을 대상으로 보령머드축제를 가장 잘 표현했는지, 글로벌 축제를 선도하는 이미지가 부각됐는지, 인물과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색다른 디자인으로 구성됐는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지 등을 고려해 축제 및 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공모 결과 대상은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은 20만원이 주어진다.기타 공모와 관련된 작품규격, 출품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내년 24회째를 맞



이하는 보령머드축제 포스터는 일상을 탈출하는 생동감과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역동성 등을 생생하게 담아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로

인지를 확고히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유능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영록 지사, "환경친화축산 실현 적극 협력" 당부

22일 전남 축협조합장과 축산 발전방향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남 지역 축협 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해 축협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간담회는 도내 18개 지역축협 조합장과 김지서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1명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논의에 앞서 "전남축협 운영협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기부와 가축시장 휴장 동참과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축산 피해 농가에 인력과 장비, 구호물품 등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며 "축협 조합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지사는 지역축협의 현안 사항을 청취 후 전남 환경친화형 축산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남축산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가축분뇨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 확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 학교우유 급식 확대 방안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들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환경친화형 축산 실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축협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환경친화형 축산의 미래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 청정지역,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영만/기자



문화도시 부평, 서브컬처 기반의 문화 창업 실험 펼쳐 부평지하상가서 '지하x실험가게 프로젝트' 진행

부평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평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서브컬처 기반의 문화 창업 실험 '지하x실험가게 프로젝트'를 부평지하상가 모두물에서 진행한다.

서브컬처란 그래피티를 비롯해 스케이트보드, 전자음악, 펑크락, 힙합 등 소위 하위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서브컬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도시 부평의 프로젝트다.프로젝트는 부평지하상가 모두물과 ㈜마포코퍼레이션이 협력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는 부평지하상가 모두물에서는 8~10개의 공실을 활용해 팝업 스토어 형식의 서브컬처 콘텐츠로 구성한 실험가게를 열어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DJ공연과 이색적인 전자음악 공연을 즐기고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체험할 수 있다.또 작가와 협업해 그래피티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이 외에도 각 실험가게에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제작한



개성 있는 티셔츠를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 상품들은 온라인 판매 대행 플랫폼인 '마플샵'을 통해 구매도 가능하다.부평문화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 실험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사회 경

제적 가치를 창출,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향후 문화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만나다

시, 새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즈유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대전시의 새 브랜드 슬로건 'Daejeon is U'를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새로운 브랜드 'Daejeon is U'의 인지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에서 '대전광역시'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이 제공되며 내려받기 시점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선착순 5만 4,000여명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기존 대전광역시 채널 가입자도 자동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다.'그림왕 양치기'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 양경수 작가와 콜라보로 제작된 이모티콘은 Daejeon is U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를 담은 이모티콘들로 구성



됐다.대전시 이용균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브랜드 슬로건이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제작했다"며 "많은 분들이

대전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으면서 일상에서 쉽고 재밌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

광주시,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광주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투명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행구기 ▲라벨 떼기 ▲찌꺼뜨리기 ▲전용 수거함 배출하기 4단계로 배출 종이팩도 마찬가지다.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활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중 70%가 올바른 분리 배출이 안 돼 재활용률이 떨어졌다.

※ 종이팩은 ▲내용물 비우기 ▲물에 행구기 ▲펼친 후 말리기 ▲전용 수거함 배출하기 등 4단계로 분리 배출또한,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찌꺼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과일망, 과일포장재, 칫솔, 볼펜, 고무장갑, 은박비닐 등은 종량제 봉



투에 버려야 한다. 광주시는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에 현수막 홍보물 등 3종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단독주택, 원룸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공공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정경사업(총 1092

명/63억원)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박재우 시 자원관리과장은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생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에서 새로워진 강동을 만나요

상암로 풍성로 양재대로 일대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장 공사



강동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에 나섰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 지주형 공공 시설물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공사를 시행한다. 부착방지시설 설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인 신구설치 구간, 길동 이면도로, 설치된 부착방지판이 노후화된 유지보수 구간, 풍성로)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전단지 등은 지속적 단속에도 현실적으로 100% 근절이 어렵고 정비 후에도 그 흔적이 남아 도시미관을 해친다.

또한 노후화된 부착방지판의 파손·오염에 따른 보행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특수코팅 표면 처리된 부착방지 도장을 시공해 이러한 불법 첩지류 발생을 사전

에 차단하고 기존 잔여물 제거와 부착방지판 교체·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확대 설치와 유지보수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예정"

이라며 "단속·정비·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전단지를 첩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구 전역으로 부착방지 도료 시공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용인시, 일반·개인택시 1900여대 청결상태 점검

용인시는 23일 시민들이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일반·개인택시 1923대의 청결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14~15일 21~22일 4일간 개인택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삼가동 미르스타 디움에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차고지에서 진행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에 의거해 차량내·외부 청결 상태, 요금미터기 작동상태, 택시운전 자격증명 게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비치와 운전자 마스크 착용 등도 함께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선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1월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찬/기자

창원시, 강소특구 불모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 조성 예정지 개별적 개발행위 등 무분별한 개발 사전 방지



창원시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과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소특구 불모산동 일원에 17만㎡ 규모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불모산동 일원에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어 방지가 필요한 지역일대를 주민공람 실시 이전 조치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

전협의를 완료한 구역경계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5일자로 고시됐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다. 다만, 기존주택 노후화 및 시민의 주거생활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항의

행위, 고시일 전 인·허가 사항 기간연장, 공익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사업 등은 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향후 배후공간으로 예정된 불모산지구를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지능전기분야를 기계와 융합해 신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위한 R&D 거점 배후공간인 전기·기계융합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

선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입안 절차를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시행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용호/기자

평택시,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캠페인 실시

평택시는 지난 22일 평택의 중심 상업지구인 평택대 일대 입간판에 대해 대대적인 야간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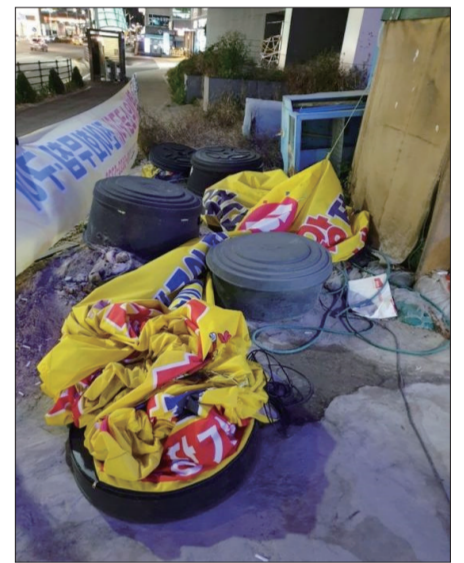
평택대 일대는 시내 대표적으로 불법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야간 단속 캠페인은 평택시 주택과, 용이동,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등 총 15명이 함께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평택대 일대에 총 50여개소의 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주에게 에

어라이트 자진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단속·정비 안내문을 함께 배부해 불법에어라이트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또한 기존에 계고장을 발부했던 불법에어라이트 중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6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완료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의 일방적인 에어라이트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대전소방, 소방장비 관리상태 일제점검 실시



대전시 소방본부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 까지 2주간 '소방장비 관리상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점검은 대전 소재 5개 소방서와 소속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소방차,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등 각 장비별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소방차량 관리 상태 차량 조작능력 숙지 상태 구조·구급·소방통신장비 운영 현황 현장활동대원 개인보호장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최우수 소방서 최우수 119안전센터를 선정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장비 관리,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장비점검을 실시한다"며 "현장 활동 시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장비 조작능력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정화/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시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비화산지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양시,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워크' 성황리 개최

17개국 400명이 온·오프라인 참여, 영향력 있는 글로벌 마이스행사로 확실히 자리매김



고양시는 글로벌 마이스 행사인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워크'를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소노캄 고양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장 참가자 50여명을 비롯해 17개국 400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마이스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컨벤션뷰로가 주관한 '고양 데스티네이션 워크'는 글로벌 MICE 산업 시장 동향과 전략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국제 교류의 장이다.

올해로 4회를 맞아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된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워크'는 '포스트 코로나의 MICE 데스티네이션 회복: 위기 관리전략 그리고 디지털 미팅의 미래'를 주제로 1일차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2일차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과 GDSM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로 구성됐다.

개막행사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환영사와 황희곤 '2020 고양 데스티네이션 워크'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마이스산업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기업, 수출, 일자리와 관광까지 경제의 모든 요소를 끌어안는 거대한 품으로서 마이스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과 일산테크노밸리, CJ 라이브시티 등 고양시의 거대한 경

제지도 완성을 통해 마이스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첫날 행사인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는 '하이브리드 이벤트'로 진행됐으며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4개국 27명의 마이스 전문가가 코로나19 극복방안에 논의하는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세션1. 회의산업에서 뉴 비즈니스 모델

후주 대표적 PCO인 아리넥스 창업자 로잘린 맥레오드와 CEO 니콜 위커는 주제강연을 통해 e-러닝, 기술 개발 등을 통한 MICE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성은 이도플래닝 대표, 오규철 ㈜엔씨아이코리아 대표, 손정미 마이스 임팩트 연구소 소장 과 이슬기 세종대학교 교수의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2. MICE 목적지 프로모션 및 하이브리드 행사 활용법 두 번째 세션 강연을 맡은 대만 미팅서비스사 GIS그룹의 CEO 제이슨 예는 MICE 목적지 프로모션 및 하이브리드 행사 활용법에 대한 강연으로 디지털 미팅의 품질을 올리고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윤은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조덕현 한국관광공사 실

장, 이정우 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홍주석 수원컨벤션센터 팀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허준 교수는 "업계

의 연구·개발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과 협력 증대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션3.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메뉴 및 도시 대처방안 세 번째 세션에서 킨텍스 컨벤션마케팅팀 양주운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메뉴 및 도시 대처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고양시와 킨텍스의 방역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뉴노멀 시대를 대비한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 오픈 등 메뉴로서 킨텍스의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 진홍석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다른 집합장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시산업을 재개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대구컨벤션뷰로 국장, 김미경 고양시청 마이스산업팀 부팀장, 이현주 링크팩토리 이사, 권병은 김포문화재단 팀장, 김동욱 코엑스 메뉴마케팅팀장이 각각의 도시와 메뉴의 사례를 들어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김미경 부팀장은 회의산업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MWC 2020 등 글로벌 대형 전시가 취소됐으며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홍보 및 무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또한 화상상담 확대 및 온라인 전시장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전시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메뉴컨설팅 전문가인 이현주 이사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 CES 2021년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온라인 전시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향후 전시산업에서도 하이브리드 또는 온라인화가 주를 이룰 것이고 오프라인 전시

공간의 소규모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메뉴 수익모델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4. MICE 스타트업 성공사례 제시 마지막 세션은 유스노 유노스 Evenesis CEO의 주제강연으로 시작했다. MICE 관련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제시한 강연으로 그는 오프라인 행사 현장을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하이브리드 스트리밍 솔루션',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 기술 제시와 더불어 디지털 활용에 자신감을 가질 것을 권했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채널케이 이윤경 대표, 엑싱크 송보근 대표, 엠더블유네트웍스 성민욱 대표, ㈜아이티엔베이직 민경욱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엑싱크 송보근 대표는 "코로나 이후 라이브 스트리밍은 필수 기술이 될 것이므로 온라인 이벤트만의 기능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개발한 성민욱 대표는 MICE 분야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 이미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첫날 행사와 달리, 두 번째 날 행사는 전면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제컨벤션협회에서 진행한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테이블'은 고양, 방콕 등 4개 도시의 지역관광 추진조직이 코로나 사태 도시별 대응사례 발표와 전문가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진행된 'GDSM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에서는 GDSM의 대표 가이 박우드의 진행으로 한국과 시드니의 데스티네이션 지속가능 계획 등 사례발표와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고양컨벤션뷰로 이상열 단장은 "온·오프라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행사에는 대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테이블에는 우송대학교 학생 50여명이 온라인을 통한 참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 프로젝트 광명핀셋발굴단 본격 활동 나서

광명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함께 찾고, 살피고, 나누고, 돕고' 비전 선포식 진행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광명시,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기아자동차소하리 공장이 힘을 합쳤다.

광명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핀셋발굴단 발대식'과 'PLAY 기아 희망동행 차량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상재 회장, 박종숙 핀셋발굴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광명핀셋발굴단'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위기가정 증가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광명시·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이다.

광명시 1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핀셋발굴단이 되어 지역 내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이들 가정을 지원한다. 지원은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로 모금된 성금으로 200가정에 최대 50만원, 총 1억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기에 힘을 보태 기아자동차와 전국고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전국고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1대를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명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함께 찾고, 살피고, 나누고, 돕고'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비전선포식은 나무에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으

며 나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물은 민과 관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고, 나누고, 돕는 노력을, 꽃은 위기가 해소되어 웃는 광명시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렇게 민과 관에서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시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주시는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차량을 지원해주신 기아자동차와 전국고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광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상재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심시일만 모아주는 성금을 꼭 필요한 이웃을 찾아 전달하겠다"며 "직접 발로 뛰어주시는 핀셋발굴단, 협조해주시는 광명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핀셋발굴단 박종숙 단장은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명시희망나기운동본부의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에는 지난 2월 5일부터 기업, 개인, 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 현재 총186회까지 이어져 4억8천여만 원의 성금과 2억 원 상당의 성품이 모였다.

전순희/최정무/기자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읽기문화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화재 복구 위해 행·재정 지원 총력

추석 앞두고 화재 피해 입은 상인
위한 예산 지원...총 4억5천만원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9월 21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석 대목을 앞두고 명절 과일 상품을 대량 적재해 둔 점포와 창고 등 30여 점포가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에 동대문구는 청과물시장 일대 화재 재난수습 및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화재 당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직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경제진흥과 등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 시설복구반: 건축과 생활지원반: 복지정책과 등 에너지 복구반: 맑은환경과 의료방역반: 지역보건과 재난수습홍보반: 홍보담당관 등 7개 반, 9개 부서로 구성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는 현재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화재 시장 수습을 위한 책임부서장을 지정하며 화재복구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우선 화재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점포에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다.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총 2억4천만원을 가장 신속하게 편성해 폐기물 처리비용 5천만원 영업재개를 위한 가림막텐트설치 1천2백만원 비·햇빛가리개 보수 1억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구에서 피해상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상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장구를 마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출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 2억1천만원을 지원해 폐기물처리비용에 1억5천만원을 쓰였으며 재난지원금 6천만원은 30개 점포에 2백만원씩 개별 지급했다.

다만 이번 화재 현상이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던 특별재난금은 지원 받지 못했다.

구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청량리전통시장의 활력을 화재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화재현장에 수시로 방문해 피해점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는 화재 현장의 폐기물을 빠르게 수거하고 피해점포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림막 텐트를 설치해 임시판매장소를 마련했다.

더불어 피해점포 물건 팔아주기

캠페인을 열어 직원들이 불에 그을린 과일을 구매하는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후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진단, 전통시장 긴급화재안전점검 실시, 전통시장 전체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불의의 화재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동대문구는 피해 상점을 화재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통시장의 노후화 문제, 화재안전점검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 안전한 전

통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9월 21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석 대목을 앞두고 명절 과일 상품을 대량 적재해 둔 점포와 창고 등 30여 점포가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다. 이에 동대문구는 청과물시장 일대 화재 재난수습 및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화재 당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직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경제진흥과 등 재난현장환경정비반: 청소행정과 시설복구반: 건축과 생활지원반: 복지정책과 등 에너지 복구반: 맑은환경과 의료방역반: 지역보건과 재난수습홍보반: 홍보담당관 등 7개 반, 9개 부서로 구성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는 현재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화재 시장 수습을 위한 책임부서장을 지정하며 화재복구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우선 화재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점포에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다.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총 2억4천만원을 가장 신속하게 편성해 폐기물 처리비용 5천만원 영업재개를 위한 가림막텐트설치 1천2백만원

비·햇빛가리개 보수 1억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구에서 피해상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상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상품 안내장구를 마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출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 2억1천만원을 지원해 폐기물처리비용에 1억5천만원을 쓰였으며 재난지원금 6천만원은 30개 점포에 2백만원씩 개별 지급했다. 다만 이번 화재 현상이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던 특별재난금은 지원 받지 못했다. 구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청량리전통시장의 활력을 화재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화재현장에 수시로 방문해 피해점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는 화재현장의 폐기물을 빠르게 수거하고 피해점포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가림막 텐트를 설치해 임시판매장소를 마련했다.

더불어 피해점포 물건 팔아주기 캠페인을 열어 직원들이 불에 그을린 과일을 구매하는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후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진단, 전통시장 긴급화재안전점검 실시, 전통시장 전체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불의의 화재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동대문구는 피해 상점을 화재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통시장의 노후화 문제, 화재안전점검 등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영등포에 공연잔치 열렸네... ‘힐링 콘서트’ 개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영등포
문화예술단체 신작·대표작 공연

영등포구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동네에서 만나는 공연축제 ‘모람모람 콘서트’를 개최한다.

2019년 1회 ‘우정과 환대의 예술제’에 이어 2년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영등포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활동해온 공연문화예술단체의 신작과 대표작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축제다. 가을밤을 수놓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비롯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을 구민들에게 선사하고자 기획된 이번 축제는 모두 영등포아트홀에서 처음 선보이는 공연으로 구성됐다. 이달 28일 에니메이션 명곡을 영상과 함께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콕핏스튜디오의 ‘애니뮤직대모험’, 30일 김탁환 작가의 원작을 판소리로 새롭게 탈바꿈한 창작집단 싸목싸목 ‘한국호랑이 왕대의 모험’을 비롯해 다음달 6일에는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다양한 음색이 조화를 이룬 타무의 ‘말하는 원숭이’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준비돼 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들이 클래식 명곡 오케스트라를 피아노 건반 위로 옮긴 한국리스트 협회의 ‘Piano 2,4,8,12 Hands’와, 영상과 현악·성악이 함께 만나 클래식의 지루함을 덜어낸 한우리오페라 예술단 ‘양상블 로망스의 작은 음악회’ 등 구민들의 가을 감성을 자극할 클래식 공연들도 마련됐다.

공연 기간 동안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해독’ 주제전을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는 무료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번 축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객석 간 거리두기 및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지침과 더불어 공연 입장 전 반드시 발열 체크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구는 이외에도 축제 기간 내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공연 관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예정이다. 유선 및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예매와 영등포문화재단 전화 예매가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이

다. 이와 함께 2개의 공연을 예매하면 1개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 2+1 패키지도 준비돼 있으며 전화예매에 한해 가능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에게 드리는 힐링 종합선물세트”며 “오랜만에 선보이는 공연인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광주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첫 수확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육성해온 국내육성 신품종 하우스감귤을 올해 처음으로 수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첫 수확을 한 감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적응이 가능한 신소득 작목 발굴·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는 감귤연구회를 중심으로 8농가 1.2ha의 하우스감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감귤 신품종 확대 보급, 재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농가 맞춤형 전문컨설팅 및 역량 강화교육 등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하우스감귤은 농촌진흥청 감귤연구회에서 육성한 ‘하례조생’ 품종이 대부분이며 체험 및 직거래 판매를 위해 속기

가 빠르고 과피색이 다른 품종을 일부 재배하고 있다. 이 품종들은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서 맛이 좋다. 올해 수확한 감귤은 1kg, 2kg 단위로 소포장해 직거래 및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 농가별 감귤 따기 체험도 계획하고 있어 감귤을 맛보고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안전하고 맛있는 감귤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찬/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세계축제협회가 인정한 '청송사과축제'

청송군은 23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된 '제14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청송사과축제가 '축제유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는 세계적 축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축제정보 공유 차원에서 1956년 설립된 세계축제협회의 한국지부에서 200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축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이다. 특히 이 대회는 수준 높은 국내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접목해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 대회는 축제유형부문, 영상 & 오디오부문, 멀티미디어부문, 홍보디자인부문, 상품부문, 주요·대표 프로그램부문 등 총 9개 분야로 나누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으며 총

24개의 축제를 선정했다. 축제유형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축제는 농특산물 축제의 한계를 극복한 축제로 평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군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축제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청송사과축제가 지난해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에 이어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 성과는 청송군민이 하나 되어 참여해 준 덕분"이라며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청송사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인용기자



경북교육청, 복식학급 학생 학습권 보장에 전력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학급이다.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 학습 지도 시간 부족 등으로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했다. 2018년까지 편성기준은 두 개 학년 10명 이하였다. 이를 올해 7명 이하로 낮췄으며 그 결과 2년간 61개 복식학급이 해소됐다. 2022년에는 6명 이하까지 편성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복식학급 협력강사제를 도입해 28개교에 총 31명의 강사를 지원했다.

총 지원 예산은 3억1000만원으로 복식학급 수업 시간에 협력강사를 투입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도, 학습 자료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난 9월에는 복식학급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절차와 유형, 복식학급 경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식학급 운영 매뉴얼을 개발·배부했다.

10월 초에는 복식학급 운영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외와 건의 사항을 수합해 온라인 연수를 기획했다. 지난 14일 복식학급 교원 1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협의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복식학급 수업 개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오는 11월에는 복식학급을 처음 담당하게 되는 교원을 위한 '복식학급 운영 Q & A' 개발에 들어간다. 12월 중 개발을 완료·배부할 예정이다. 경북 수업나누리에서는 복식학급 담당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복식학급 자료실, 온라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북은 68.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35개교, 219개 학급에서 1,000여명 학생이 복식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복식학급과 소규모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 확충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인용기자

2020 특별기획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

가을 감성 듬뿍 담은 안동문화예술의 향연

2020 특별기획 소규모 문화축제 'Semi-festival, 안동에 가면'이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지역 문화 공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안동시가 주최,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고 기와 흥이 넘치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총집합해 그야말로 안동문화판 페스티벌로 펼쳐진다. 코로나 19로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깊어가는 가을날 안동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즐기며 심신을 힐링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번 축제에는 안동에서 활동하는 100여개 문화예술인 단체가 참여해 공연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 기간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동의 소담하고 아름다운 문화 공간들에서 계절러스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또,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은 탈춤공원 특설무대에서도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별도의 관객을

모객하지 않고 운영되기에 모든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SNS로 송출되고 현장상황을 반영한 편집영상으로도 업로드해 현장을 찾지 못한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랜다. 탈춤공원 특설무대는 코로나 19 시대에 맞춰 제한적으로나마 관객들을 수용하고 안전 요원들을 배치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객석은 거리두기를 준수해 좌석을 배치한다.

특히, 일부 구간은 간이 텐트를 설치해 가족, 연인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해 그동안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공연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문화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코로나 19로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신명나는 문화예술의 향연 속에 깊어가는 가을의 매력을 만끽하며 지친 일상 속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2020. 10.26(월) - 11.1(일)
탈춤공원 10.30(금) - 11.1(일)

경주시 양북면 명칭변경 찬성 88.3%, 새명칭 '문무대왕면' 압도적

주민설문조사 새 명칭 제안의 76.5%가 '문무대왕면' 선택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실시한 경주시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주민설문조사 결과 1,288세대 중 1,137세대인 8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기술항목인 새 명칭 제안에는 '문무대왕면'이 76.5%로 압도적이었다. 조선시대까지 감포, 양남과 함께 동해면으로 불리던 '양북면' 지명은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방위에 따라 붙여진 지명이다.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고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고귀한 왕의 뜻을 묻은 세계 유일의 수중릉인 문무대왕릉이 1,300년이 넘도록 동해를 지키고 있는 양북면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문무대왕면'이 선택된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무형의 가치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문무면, 대왕면 등 문무대왕 관

련 명칭이 17.8%, 대종면, 대종천면이 2.2%, 기타 기립사면, 토함산면, 석굴암면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양북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새 명칭 선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주시는 명칭변경추진위원회에서 새 명칭안을 선정해 의결하면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며 더불어 산과 바다, 문화유적이 아우르고 있는 양북면이 오랜 관광도시 경주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향유하는 감성 로컬 스테이 명소로 호국정신과 삼국통일정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교육의 메카로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양북면이 새 명칭과 함께 비상할 것"이라며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김천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모면사무소를 찾아가다

김천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해소 및 다양한 행정·민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2일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위치한 어모면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모면 현장민원실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수리했고 코로나 19로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였던 김천의료원에서는 혈압·혈당 및 골다공증 검사를 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경로당이 폐쇄되어 운영하지 못하였던 교통봉사대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경로당에 벽시계를 제공

해 주시는 등 면민들에게 행복을 전해 줬다. 또한 예쁜순금씨로 에코백 만들기, 천연염색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건축, 국제 및 지방세, 의료급여, 지적 등 행정관련 각종 상담을 비롯한 이·미용, 장수사진, 심폐소생술 교육, 핸드드립커피 등 행정 및 민간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장민원실을 찾은 어모면민은 "우리면을 찾아오셔서 치매조기 선별검사, 혈압·혈당·골다공증검사 등 건강체크도 해주시고 머리 컷트, 장수사진, 각종 체험으로 코로나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어모면 현장민원실도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속에서 준수하면서 생활민원 7개분야, 이동전문봉사 11개분야, 주민불편 순회봉사 3개분야, 생활편의교육 2개분

정몽호기자

영천시,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 개관

10월 27일 개관, 화랑설화를 테마로 한 레저복합형 문화공간

영천시는 화랑설화를 테마로 조성한 레저복합형 문화공간 화랑설화마을을 오는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화랑설화마을 진입마당에서 아리랑태무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현판식,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개관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결과 주말에는 2,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아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랑설화마을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약소국 신라를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던 화랑도를 기반으로 김유신장군, 화랑설화,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성한 레저복합형 문화체험 공간이다. 주요시설로는 신화랑우주체험관, 화랑배움터, 화랑4D동영상관이 있고 야외에는 설화체험마을과 국궁체험장을 갖췄으며 편의시설로는 그린스테이션, 풍월뫼, 공연장 등이 있다. 신화랑우주체험관은 화랑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2종류의 VR체험을 할 수 있다. 화랑배움터는 자연 속에서 수련한 화랑들처럼 아이들이 화랑의 수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키즈존이다. 4D 돔 영상관에서는 귀화랑성을 재해석한 21세기 신귀화랑성 이야기를 4D 입체영상으로 10분간 상영한다.

아외에는 김유신의 일대기 모형,



화랑마당, 낭비성 전투체험이 갖춰져 있는 설화체험마을과 전통 활쏘기인 국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국궁 체험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풍월뫼, 공연장, 잔디광장, 벽천폭포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 그린스테이션 1층에는 휴게실인 영천관, 세미나실, 샤워장 등이 있고 2층에는 방문객 커피가 조성되어 간단한 차와 음료를 즐기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향우 카페와 한복대여점이 입점 예정으로 있어 방문객들에게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랑설화마을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3월에서 10월까

지는 10:00~오후 6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10:00~오후 5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이용료는 일반인 기준으로 신화랑우주체험관 3,000원, 화랑배움터 5,000원, 화랑4D동영상관 3,000원, 국궁 화살 10발 2,000원이며 영천시민은 단체요금을 적용받는다. 최기문 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개관인 만큼 화랑설화마을을 방문하는 분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 19로 침체된 영천관광이 다시 활기를 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김해시,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 개최하다

예술로 풀어가는 가야왕도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

김해시는 남명정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를 오는 10월 24일 제1회 전국 남명 어린이 창작 동요제를 시작으로 장유대청중앙공원,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향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예술로 풀어가는 가야왕도 "제2회 김해 남명문화제"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창작 공연, 시민참여 예술행사, 학술대회, 서화전과 같은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24, 25 양일간 장유대청중앙공원에서 남명포토존과 개막식을 포함해 볼거리가 다양한 야외행사가 진행된다. 남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행사인 창작공연 마당극 '경의 검' 공연과 생활예술인 페스티벌, 청소년 페스티벌 등 시민 주체의 행사가 개최되고 전시행사로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남명의 시조를 소재로 한 서예, 문인화 등을 전시하는 남명서화전 특별초대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김해향교에서 '남명 소식의 시문'에 나타난 김해의 지역적 성격' 외 2가지 주제로 학술행

사가 개최되는데, 토론을 통해 남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명 소식 선생은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룬 경주상도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그의 의와 경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선비정신은 많은 제자들을 감화시켜 남명학파가 생성되기도 했다. 재야 지식인으로서 실천을 중시한 그의 사상은 임진왜란 시기 의병활동으로 계승됐고 그의 여러 상소들은 아직도 충언의 본보기로서 남아있다. 그의 사상은 중년기에 완성됐으며 그 시기를 김해 대동면 산해정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명 사상의 측면에서 김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외 홍보를 최소화하고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학생사생대회와 백일장은 공모전 형식의 비대면 대회로 변경했으며 행사장 내 안전요원을 배치해 거리띄우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철저히 기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남명 조식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산해정이 자리한 김해에서 남명사상을 계승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신적 가치가 확대대하는 현대 사회에서 큰 의

미를 가지는 남명사상이 시민들에게 널리 전달되어 전통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변한, 그 시대 부산을 담다'

2020년 복천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부산시 복천박물관은 10월 23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2020년 특별기획전 '변한, 그 시대 부산을 담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금까지 발굴된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을 정리하고 그 연구성과를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삼한시대 부산에는 동래지역을 중심으로 변한 12국 중의 하나인 변진독로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널무덤과 덧널무덤 등 무덤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켜묻거리를 함께 묻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와질토기가 생산되고 무기, 공구, 농구 등 다양한 형태의 철제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생산된 철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반이 됐으며 이후 가야 문화를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은 동래지역의 온천동, 복천동, 내성, 낙민동 유적 금정지역의 노포동, 구서동, 두구동 유적 기장지역의 방곡리, 가동, 동백리 유적 영도의 조도패총 등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널무덤과 덧널무덤에서 출토되는 각종 와질토기 등근거리 큰 갈, 고사리무늬 마늘쇠 등 철제류 노포동 유적 유리옥 장신구 낙민동 100번지 유적의 골각기 등 대표적인 삼한시대 유물 200여 점이 공개된다. 또한, 널무덤과 덧널무덤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분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영상으로 제공된다. 전시 관람은 전시 기간 내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천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다. 한편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은 복천박물관 홈페이지 온라인박물관 또는 유튜브 복천박물관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번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 원류인 변한시대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보고 500년 이상 계속되었던 그 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보문단지, 이제는 '보문투어패스'로 즐기세요

하나의 모바일 티켓으로 48시간 맘껏 자유롭게 즐기

경주동궁원은 48시간 동안 보문지역 내 동궁원을 비롯해 주요관광지 10여 곳 중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 관광할 수 있는 '보문투어패스' 상품을 출시해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문투어패스'는 경북투어패스 홈페이지와 네이버쇼핑, 쿠팡, 위메프, 티몬, 지마켓, 11번가,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등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동궁원 등지에서 모바일 티켓 확인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다. 보문투어패스는 크게 실속형과 고급형이 있으며 실속형은 동궁원, 손재림 화폐박물관, 키타트뮤지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백악기월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급형은 실속형에 또봉정크아트뮤지엄,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이 추가된 구성이다.



실속형과 고급형은 빅2와 빅3 두 가지 유형으로 선택에 따라서는 최대 14,100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보문주요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

덧붙여 내년 1월까지 스누피 전시회가 진행중인 우양미술관이 포함된 패키지도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특별가맹점으로 별채반 교동삼밥, 료미, 황남관 한옥호텔, 경산도 등 주변 식당 및 숙박 시설과 제휴를 맺고 있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동궁원은 가을을 맞아 원내 곳곳에 국화단지를 조성돼 있어, 코로나19

한반식기자

김천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11월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김천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되고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접수는 국제청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사업체, 공동대표자, 올해 창업자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자가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몽호기자

코로나 19도, 경제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세요~

신속지급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검색시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검색, 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9월24일과 25일에 한하여 원활한 신청, 접수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공차리 숫자 기준, 2부제(출력제)로 접수

확인지급신청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중범이 필요한 소상공인 / 추적지급 신청관련 상세안내문(내선) 신청 원예

문의 전화 :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114 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상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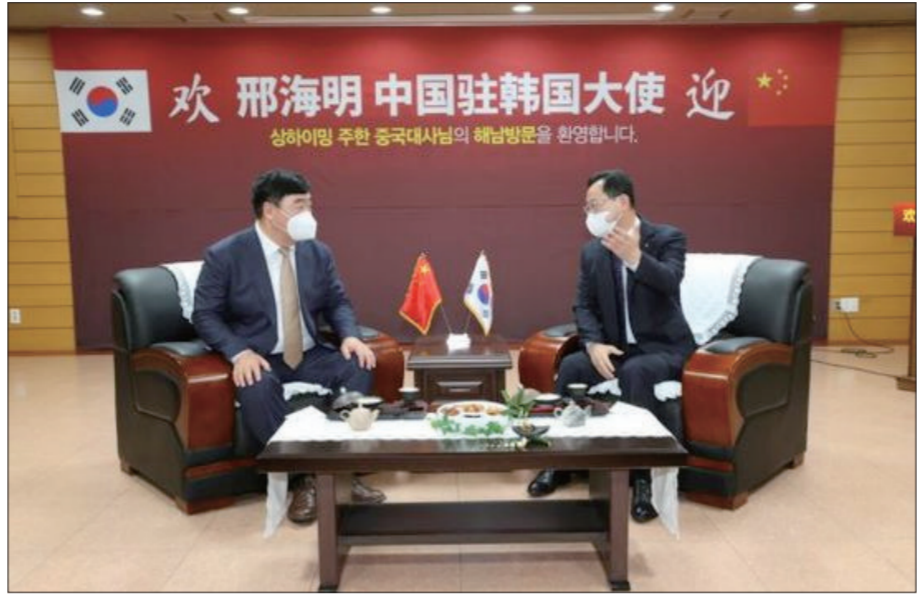
해남군, 포스트코로나 대중국 교류새장 연다

해남쌀 중국수출 기념식 등 참석 “코로나 이후 발전 계기 만들자”

명현관 해남군수와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올 들어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심 대사는 22일 해남군을 방문, 명현관 해남군수와 환담을 갖고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 대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이뤄진 명군수의 중국대사관을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새로운 교류협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심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해남 농산물의 중국 수출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을 열고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대사는 “수천년 동안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공유해온 중화인민공화국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오늘 땅끝이라는 뜻깊은 곳에서 명군수님과 만남으로써 코로나를 함께 이겨낸 이후에는 한층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심 대사는 유기농 해남쌀의 중국 수출 기념식 등에 참석하는 등 1박 2일간의 일정을 진행한다. 22일 열린 쌀 수출 기념식에는 심 대사를 비롯해 장경강 주광주총영사 등 중국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님의 해남방문을 환영합니다.

대사관 관계자들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중국 수출대행사인 CCIC 위카이궈 대표 등이 참석해 해남쌀 수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해남군은 올해 가공수출 쌀전문 재배단지에서 재배한 가능성 쌀인 ‘친환경 가바쌀’을 중국에 첫 수출한다. 땅끝항도친환경영농법인의 친환경 가바쌀은 국내 최초로 중국 국가 유기인증 받은 최고급쌀로서 관해미 브랜드명으로 올해 총 3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참석한 심대사는 중국의 사기에 나온 ‘민이위식천’을 인용한 뒤 “천혜의 자연과 선진 기술로 만들어진 맛있는 해남쌀이 중국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특히 심대사는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황조별묘를 참배하고 해남과 중국의 오랜 인연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는 정유재란 당시 수군 도독으로 출병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예군을 물리친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이주 정착해 광동진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황조별묘는 진린장군의 사당으로 중국과의 400년 우정을 상징하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심대사는 1박 2일간의 해남 고산운선도유적지와 대흥사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한편 기업도시와 오시야노 등 해남의

주요 투자유치 대상지에 대한 시찰도 실시한다.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에너지 자급형 미래 도시 구축이라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최적으로 꼽히는 솔라시티 기업도시를 비롯해 제주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오시야노 관광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설명회를 통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해남에 대한 관심을 이끌겠다는 목표이다.

22일 기업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방문한 심 대사는 “중국은 올해 GDP 성장을 플러스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고 한국 또한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경제대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계속해

여수 최초, 요트분야 국제 선수권대회 유치 ‘꽤’

2022 옵티미스트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대회 개최

2022년 4월 29일부터 8일간 소호 요트마리나에서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요트분야 국제 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여수시는 22일 ‘2022 옵티미스트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옵티미스트 유럽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슬로베니아에서 협회 총회를 거쳐 낭보가 날아왔다. 시에 따르면 2022년 대회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29개국 3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당기 요트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당기요트는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조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요트의 입문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대회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 8월 국제옵티미스트요트협회에 개최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온라인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여수에서는 처음으로 요트분야 국제 선수권 대회를 유치할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역량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남도, 가을 담은 ‘남도한바퀴’ 운영 재개

24일부터 운영...아경테마 신설 등 프로그램 다채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남도한바퀴를 오는 24일부터 가을상품으로 운영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어 광주,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관광시설물 개방도 잇따르고 있어 운영 재개가 결정됐다. 여름상품에 이어 가을상품도 코로나19에 대비해 실내관광지보다 개방된 야외관광지로 편성했으며 승차인원도 45좌석에서 20좌석으로 축소된 거리두기 좌석을 적용하고 철저한 방역지침을 세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가을상품에는 남도의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아경 테마가 신설됐다. ‘낮과 밤이 빛나는 별빛여행’을 해 광양의 도시 야경을 한눈에 즐길 수 있고 ‘바닷가 옛골목 이야기 갯바람 레드투’ 여행을 통해 목포의 밤바다와 남도의 맛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정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돋구울 예정이다. 총 25개 테마로 운영될 가을상품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힐링코스 ‘마음산책’과 ‘템플스토리’ 알록달록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도 자연인 여행’과 ‘가을바람 여행’ 황금빛 호수를 즐기는 ‘행복한 임포리 여행’ 입도 즐기고 사랑도 키우는 ‘남도데이’ 등으로 구성돼 테마에 맞게 골라 즐길 수 있다. 가을상품과 더불어 남도한바퀴 새바여행도 재개한다.

새바여행은 KTX고속열차를 타고 광주승정역에서 내려 남도한바퀴 버스여행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KTX역에서 출발해 하루만에 전남 바다여행을 할 수 있다. 출발역은 행신역,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오송역,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등 총 8개역이며 용산역 기준 오전 6시 30분 출발할 KTX505열차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상품안내와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과 금호고속 남도한바퀴 콜센터, 레츠코레일 여행상품코너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전라남도 관광마케팅팀장은 “남도한바퀴 가을상품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로 하고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다”며 “안전하고 저렴한 또 가을 풍경이 매력적인 전남에서 낭만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캠시스 사업 확장 위해 영광군에 투자규모 확대

총 485억원, 128명 고용창출로 전기차 시장 선점 계획

영광군은 지난 20일 ㈜캠시스와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수정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수정 투자협약을 체결한 ㈜캠시스는 초소형전기차 CEVO-C를 생산하는 대마산업단지 대표기업으로 영광군과 2017년 6월 대마산업단지 내 전기차 생산 및 양산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해 2019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기업이다.

이번 수정 투자협약은 1단계 계획이었던 투자 180억원, 58명 고용창출 완료, 2단계 투자계획인 총 투자 485억원, 128명 고용창출에 대한 내용이다. ㈜캠시스는 이번 투자규모 확대로 신모델 전기차 개발, 판매 고등학교 학생 대상 인재양성 교육, 인천시에 있는 본사를 영광군으로 이전할 계획도 밝혔다.

이번 ㈜캠시스의 투자규모 확대는 앞으로 대마산업단지가 e-모빌리티 산업의 메카의 자리를 확고히 다



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70여명의 고용창출이 계획되어 있어 판매 취업을 준비하는 군민에게도 희소식을 전해 더욱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에 투자

협약한 ㈜캠시스의 투자 규모 확대가 영광군에 가져 올 파급효과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되며 낱알이 번창하는 ㈜캠시스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순창장류산업특구 사업 확대로 100년 먹거리 기반 마련

중기부, 총면적 353,322㎡, 사업비 1,828억원 계획변경 승인

대한민국 1호로 지정된 순창장류산업특구가 생산과 소비·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미래 순창의 100년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23일 정부로부터 순창장류산업특구의 면적 확대 및 특화사업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구 면적이 22만5천㎡에서 35만3천㎡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당초 974억원에서 1천828억원으로 854억원이 증가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우수 지역특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은 기존의 지역특구면적에 투자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천175억원을 투자해 추역의 식물기 등이 조성되는 참살이 발효마을 건립과 세대통합형 실내농어문화센터, 음식 및 스토리 마켓 등 소비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경제형 지구 조성한다.

또한, 유용미생물은행 및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등 연구시설과



지원센터 등도 갖춰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관광과 6차산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특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승인된 특구 계획변경에 따라 순창장류산업특구 내 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특화사업과 관련해 특허 출원을 하면 우선 심사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등이 적용되어 향후 순창장류산업과

관련된 관광 및 산업기술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지역의 특수한 자원인 발효관련 사업과 미생물산업을 활용해 소스와 장류 제품을 세계화 시키겠다”면서 “특히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체험시설 등의 종합적 정비 또는 설치를 통해 융복합 산업관광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순창의 100년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순천시, 카드형 순천사랑상품권 출시



10% 특별할인 연말까지 진행

순천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카드형을 23일부터 출시한다.

카드형 순천사랑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엠지역상품권 chak'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나 농협은행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는 없다.

1인당 구매 한도액은 기존 지류형 상품권과 동일한 월 50만원이며 상시 5% 할인구입이 가능하고 이번 연말까지는 10% 특별할인이 진행된다. 다만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통합으로 운영되며 지류형 50만원 구매시 카드형 충전은 불가하다.

카드형 순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시 상품권 충전액이 우선 소진되며 충전금액 초과나 비가맹점·후불교통카드·관의 지역에서 사

용할 경우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된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되고 어플을 통해 충전 가능해 상품권 구입을 위해 행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의 최대 단점인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남출기자

전주 한복, 뉴욕타임스 타고 '힐힐'

황 디자이너, 지난 18일 열린 '전주한복오감'의 총감독을 맡는 등 생활 속 한복문화 활성화에 앞장

전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한복디자이너가 세계적인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스에 소개됐다.

전주의 멋을 상징하는 한복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주의 글로벌 위상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샤이니, 엑소 등 최근 K-pop 스타들에게서 한복이 입혀지고 있는 현상을 기사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K-POP 스타들이 한복을 착용한 이면에는 젊은 감각으로 전통을 재해석한 한복 디자이너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표적으로 황이슬 디자이너를 소개했다.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황 디자이너는 현재 전주에서 생활한복 브랜드인 '리슬'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던한복·신한복이라고 불리며 현대적인 미감이 가미된 생활한복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특히 지난 2018 멜론뮤직 어워드

에서 대상을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중 지민이 착용한 바지 '사폭 슬랙스'가 그녀가 디자인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방탄소년단의 IDOL 무대의상도 황 디자이너가 맡았다. 전 세계 52개국에 생활한복을 판매중인 황 디자이너는 최근 혼성그룹 KARD와 콜라보 작업을 통해 SNS '좋아요' 23만개, 댓글 약 1000여개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칠레 등 남미 쪽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디자이너는 현재 전주한복다올마당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한복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개최된 한복문화주간 '전주한복오감' 행사에서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황 디자이너는 "한복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무척 뿌듯하다"며 "제 궁극적인 목표는 체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일상복으로써의 한복을 만들어 한복의 생활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성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장은 "전주 리슬 한복이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멋

과 전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능력 있는 한복 디자이너의 활동을 돕고 한복의 일상화와 와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신안군 도초면 하수정화 '자연정화생태습지' 준공

마을단위 인공 하수처리시설 대체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확대 추진

신안군은 지난 22일 도초면 한밭마을에서 '자연정화 생태습지' 준공 행사를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비금·도초 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도초 한밭마을 자연정화 생태습지는 습지면적 1,862.8㎡로 기존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0억원의 10분의 1정도인 2억 4천만원을 투입해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6월에 완공되어 인공 하수처리시설을 대체하는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이다. 생태습지는 침전 및 지류시설과 연꽃, 미나리, 물개구리밥 등 친환경적인 수생식물에 정화작용을 거쳐 수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밭마을 주민들은 "한밭리는 옛날부터 생활하수가 전부 한곳으로 흘러들어 수질이 좋지 않았으나, 이렇게 마을입구에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물도 정화가 되고 경관도 개선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자연정



화 생태습지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의 수질을 개선해 농업생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정주 여건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친환경 자연정화 생태습지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생활하수의 수질 개선 기능은 물론 주민들의 쉼터와 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것"이라며 "한밭마을 생태습지는 신안군 전체로 확대 추진할 생태습지 조성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전국 우수특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운영성과 평가, 전국 190개 중 12개 선정

임실엔치즈낙농특구가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 장관표창과 5000만원의 표창금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해 실적을 토대로 전국 190개 특구를 평가해 임실엔치즈낙농특구 등 12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최종 선정, 발표했다. 평가는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를 서면평

가와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세차례에 걸쳐 심도깊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2016년도에 지정된 임실엔치즈낙농특구는 면적 76만5천㎡에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및 임실N치즈클러스터, 임실치즈테마파크 등을 운영해 지난 해 19개의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195명, 매출액 336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임실엔치즈낙농특구는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주도의 제품연구와 개발을 추진해 8종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4건의 특허등록을 통한 제품개발 성과를 이뤄냈다. 임실N치즈클러스터의 고속도로휴게소와 치즈카페 등의 운영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임실N치즈축제를 통해 49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4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임실지역특구사업의 기반인 낙농산업, 유제품 가공산업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관광·체험과 연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임실N치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브랜드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한국형 치즈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부안군보건소, 건강Dream 이동구강교실 재개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노후화 구강보건사업 차질 2억 확보 새 단장

부안군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건강 Dream 이동구강교실을 다시 운영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의 노후화로 구강보건사업에 차질이 있었으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4인

승 버스를 구입하고 치과진료 장비와 휠체어 리프트를 탑재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은 치과의사와 구강사업담당자 3명이 한 팀을 이뤄 구강검진, 치과진료, 구강위생처치 및 스케일링, 불소겔 바니쉬 도포, 틀니보관법 및 세척방법 홍보 등을 시행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치과진료 및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자 보건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를 추진하지 못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돼 군민들에게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료접근성이 여의치 않고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못한 주민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해 지역의 구강건강지킴이로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무안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국비 10억 확보

무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무안읍 중심지역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과 군비 12억원 등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주거지역과 학교 등이 위치한 무안을 중심지역으로써 대부분의 도로가 12m이하로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고

보행여건이 열악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을 통해 차도와 분리된 보도설치, 턱낮은 보도포장 등 편안한 보행공간 확보와 고원식 교차로 교통안전표지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교통사고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연계해 군민의 생활환경과 보행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어 군민들의 삶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

한 보행환경과 사람중심의 교통 안전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적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 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Yangju
양주시

당진시, RE100산단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당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예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했다.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으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당진시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힘입어 2018년 태양광발전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올해 7월 준공돼 가동 중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낙연 당대표 외에도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과 오영훈 의원 강선우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흥장 당진 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친환경 산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간 전력 거래나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지침 마



련 전에 RE100산업단지에서 전력 자유거래 시범 실증이 가능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 그린뉴딜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그린뉴딜 제도화'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법의 국가기본법 격상과 기초지방정부의 참여의무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K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지속가

능발전 정책과 연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 그린뉴딜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그린뉴딜 제도화'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법의 국가기본법 격상과 기초지방정부의 참여의무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K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지속가

김원호기자

서천군, '서천, 보고 또 보고 시티투어' 운영

학생, 귀농·귀촌인, 일반인 등 다양한 코스 선보여

서천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서천의 다양한 역사 유적지와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서천시투어의 추가 코스 '서천, 보고 또 보고 시티투어'를 지난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코스는 3가지 테마로 지역 내 유치원생~고등학생이 주 이용 대상인 '우리 동네 수학여행' 귀농·귀촌인 단체 및 개인을 주 이용 대상인 '서천, 더 알아보기' 모든 관광객과 주민이 대상인 '서천, 노을빛 밤마실 투어'가 있다. 우리 동네 수학여행 코스는 아침 9시 학교에서 출발해 문헌서원,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장항스카이워크·장항송림산림욕장, 금강하굿둑 관광지, 신성리갈매밭, 한산모시관을 방문한다. 서천, 더 알아보기 코스는 아침 9시 서천특화시장에서 출발해 치유의 숲, 장항스카이워크·장항송림산림욕장, 6080맛나로거리, 신성리갈매밭, 한산모시관, 문헌서원을 다니는 코스로 구성됐다. 서천, 노을빛 밤마실 투어는 제 목 그대로 노을과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오후 4시에 서천특화시장

에서 출발해 장항스카이워크·장항송림산림욕장, 6080맛나로거리, 신성리갈매밭을 다니며 서해의 노을과 야간 경관을 갖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코스에 10명 이상

예약 시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 운행 전 차량을 소독하고 손 소독제 비치, 승차 전 발열 검사, 상시 마스크 착용, 승차인원 20명 이내 제한 등을 실시한다.

고정화기자



파죽지세의 천안시축구단, 팬들과 함께 만드는 승리 노린다

천안시축구단 V 창원시축구단, 천안종합운동장

스플릿 라운드 돌입 후 B그룹에서 파죽지세의 기세로 선두를 달리는 천안시축구단은 오는 25일 창원시청과 홈경기를 갖는다.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홈경기인 만큼 팬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다. 5경기 4승 1무의 기록도 긍정적이지만, 8골 1실점이라는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시즌 종료까지 창원, 양주와의 홈경기 2경기를 남겨둔 현재 B그룹 1위를 위해 다득점, 무실점을 이어가야 한다. 창원과의 지난 만남에선 3-3으로 양 팀 도합 6골이 터지는 혈투를 벌였다. 경기 시작 후 23초 만에

김상필이 선제골을 넣으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후 전반 종료 직전 또다시 김상필이 추가골을 넣었으나 조석재와 후반 교체 투입된 창원의 외국인 선수 타쿠마의 멀티골로 역전을 당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고석의 극장골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 무승부로 종료됐다. 지난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수비의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한 천안은 최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천안은 9위로 9승 6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창원은 11위로 7승 7무 6패를 기록 중이다. 남은 두 경기가 홈경기인 데다 팬들과 함께 한다는 이점을 살려 스플릿 라운드 '무패'를 기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조주영이다. 조주영은 이적하자마자 모든 경기에서 나서며 12경기에서 7득점을

올렸다. 지난 청주전에선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고 전주전에선 헤더골의 정석을 보여줬다. 빠른 피드와 연계플레이 그리고 결정력까지 갖춘 조주영의 발끝을 주목해야 한다. 창원과 경기의 앞둔 김태영 감독은 "최근 선수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홈경기인 만큼 팬들의 사랑에 승리로 보답하고 싶다"며 각오를 전했다.

천안과 창원의 경기엔 천안종합운동장 W구역의 일부만 오픈해 선착순 500명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또, 선착순 100명에게는 키링을 증정하며 겸품추첨 이벤트와 승리 시 김평래가 쓴다 '승리의 흥산타임'을 진행한다.

김원호기자

영월군, 한반도 전기카트 체험장 YOUNG-HERO 개장

영월군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카트 체험장을 오픈한다. 한반도 전기카트 체험장은 한반도 습지생태문화관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트 체험로 산책로 포토존 및 카페테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카트 20분간 총 320m의 길이를 체험하면서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체험장 주변에 산책로를 별도로 마련해 가족, 연인들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했다. 주민들이 '전기카트 체험장'을 직접 기획하고 실시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철학, 교육, 회의 등을 거치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역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반도권역동동조합'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지역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준기 농촌협약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자제하는 만큼 야외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몸소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전기 카트장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4일에 개장식을 치른 후 다음날인 25일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체험장 조성을 위해 벌목한 낙엽송을 주민들이 직접 깎아 20m 높이의 솟대를 만들고 영월의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지형을 본 따 트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담았으니 많은 관

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기카트 체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한반도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영월군 한반도면 4개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체험장은 '영월군 한반도면 안새내길 63-33'에 위치해 있으며 주중, 주말 및 공휴일 10:00 ~ 19:00까지 운영한다. 요금은 인당 15,000원이며 영월군민 및 단체 20인 이상 시 1인당 12,000원으로 3천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만식기자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산불피해 복구공사 본격 시작

지난해 강원 영동권 대형산불로 소실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재해복구공사를 통해 내년에는 새로운 동해시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복구공사의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와 시공사 선정 등을 마치고 23일 망상컨벤션센터에서 시공사·공사관리관·감리단 등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도비 318억원을 포함한 총 3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복구공사는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으로 시는 이번 복구공사를 기존의 해상군락지 복원을 기반으로 특색있는 숲 체험시설과 정원을 조성하고 타 리조트와 차별화된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캠핑리조트는 35동 51실 규모의 단독형 숙소와 커뮤니티 하우스, 스킵카페, 어린이 놀이장, 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해안 캠핑리조트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규연 동해시장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동해시를 대

표하는 랜드마크형 캠핑리조트로 조성해, 동해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흐름에 부합하는 캠핑·치유·정경의 캠핑특별시로 나아가도록 복구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노박래 서천군수, 유기쌀 재배단지 벼 수확 현장 방문

농민 격려 및 의견 청취... 노군수 "농민 소통과 실질적 지원에 힘쓸 것"

노박래 서천군수는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정책 현장체감'의 일환으로 23일 서래야 유기농쌀 재배단지 벼 수확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기농쌀 재배단지 회원 및 서래야쌀 재배단지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와 연이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래야쌀 재배단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고품질 쌀 생산지로 500ha의 고품질 단지, 430ha의 무농약 단지, 70ha의 유기 단지 등 총 1000ha에 달한다. 매년 5000여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형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 품목으로 유통되고 있다. 유기 재배 농가주 노형태 씨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생육이 불량해 일부 벼가 도복되고 등숙 기간이 짧아 수확량이 평년 대비 상당량 감소하는 등 어려운



이 많았다"며 "농업 현장의 고민을 함께해주시어 힘이 난다"고 고마운 마음을 밝혔다. 노박래 군수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일궈낸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을 함

께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천현초 학생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운동'

김상호 하남시장, 22일 천현초 5학년 1반 온라인공개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 실천한 경험 등 얘기 나누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천현초등학교 5학년 1반 공개 온라인 수업에 참여, 환경 그린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업에는 5학년 1반 학생 26명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장, 소종희 천현초 교장, 서권용 천현초 교감 등이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앱 줌을 활용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수업은 천현초 양영은 교사가 환경 그린 프로젝트 '해블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는 주제로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체험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음료 구매 시 텀블러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남기지 않기 플로깅 등 각자 일주일간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실천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 생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디지털 저탄소생활에도 전기와 휴대 폰 데이터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동참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을 줄이니



책을 보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고 조금만 써도 환경오염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요", "우리부터 실천해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나갈 것 같아요"라는 등 느낀 점들을 얘기하기도 했다. 양 교사는 "우리가 일주일간 함께 실천해 줄었던 탄소 8211.95g은 소나무 1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나간다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수업을

함께 한 김 시장은 "저 역시 평소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다"며 "산책과 걷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배운 플로깅은 바로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시에 플라스틱, 폐비닐 등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며 "오늘 배운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널리 알려서 시를 건강하게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영근기자

이용섭 시장,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수상

코로나19 모범 대응, 저출생 대책 마련 등 공로 인정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55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의 권익 및 지위향상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용섭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대구와 병상 나눔을 연대하는 등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여성 권익 증진 실현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앞장 서 왔으며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1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 권



익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더불어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목표를 두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을 시리즈별로 발표·추진함으로써 공공돌봄을 확대, 부모들의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원아동보호사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했다. 이번 우수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은숙 부산진구 구정장 등 4명이 공동 수상했다.

김덕윤기자

시흥시,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전수

시흥시는 21일 6.25 참전 유공자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날 복지정책과에서 6.25참전유공자 권갑술 중사의 유가족에게, 배곧동 주민센터에서는 장복남 상병의 유가족에게 국방부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국방부와 육군에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훈장을 대신 수여 받은 유가족은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을 늦게라도 기억해주어 감사하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국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제7회 이은방 백일장 심사결과 발표, 대상 최영근 님 '마늘로 선정 비대면 우편접수로 진행'

육천이 넘는 시조 시인 이은방 문학정신을 기려 우리 고유의 시조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제7회 이은방 백일장 심사결과가 발표되어 대상에 최영근 씨가 '마늘'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최영근 씨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으로부터 상장과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학·일반부 장원 이은영, 고등부 이정윤, 중학부 이수민, 초등부 전하은이 각 부문 장원의 영예를 안는 등 24명이 입상했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 이지엽 시인과 이두의 시인이 맡았다. 대상을 받은 최영근씨의 '마늘'에 대해 "겨울을 잘 견뎌야 봄에 튼실한 마늘로 거듭나는 씨마늘처럼 어머니



가 요양병원에서 겨울을 잘 견디길 바라는 깊은 시적 사유가 함축적이며 로 잘 표현됐다"며 호평을 받았다. 최만식기자

청송사과협회 우영화 회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수상

청송군은 23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2020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협회 우영화 회장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민상 시상식만 진행됐다. 자랑스러운 도민상은 경북 도민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타의 모범이 되는 도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4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우영화 회장은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청송사과협회 등

다양한 농업단체 활동으로 과수 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청송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송사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특히 2018년 6월부터는 청송사과협회장으로 청송사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생산자 조직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고품질 청송사과 생산과 청송사과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참여해 청송사과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송인용기자

맛 좋고 빛깔 좋은 영양소와 영양소로 만든 빛깔산 과기류 검색 사이트에서 만나요

사이소 검색창에 '사이소' 물을 검색하세요

청정 영양 원인

H.O.T 페스티벌 2020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영양 핫 페스티벌'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당해는 온라인 축제로 진행합니다

판매기간 9월 14일 ~ 10월 14일
판매처 사이트 www.cys.co.kr
문의전화 054-683-7300

차세대 명창들이 펼치는 전통예술의 향연“판소리 다섯마당”

네 번째 무대‘폭발적인 가창력과 애절하고 매력적인 보이스 이윤아의‘춘향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TJB대전방송은 2020전통시리즈“젊은 소리꾼 초정, 판소리 다섯마당”을 공동주최로 무대에 올린다.그 네 번째 무대로 이윤아의‘춘향가’공연을 오는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일환으로 객석 띄어 앉기로 공연을 개최한다.판소리‘춘향가’는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퇴계월매의 딸 춘향과 사랑하다가 헤어진 뒤, 춘향이 남원 신임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이몽룡이 전라어사가 되어 구한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현전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서 청중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마당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소리꾼 이윤아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국악연주단 판소리 단원으로 M.net'나의 목소리가 보여'시즌 2에 출연해 국악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젊은 소리꾼이다.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애절함은 그녀만의 가장 큰 매력이다.김양숙 명창을 사사했으며 디지털 싱글 앨범 국악가요‘하루만’, ‘후애’등을 발매하고 다양한 방송 활동과 국악공연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날 공연에서는‘춘향가’중 1. 사랑가 2. 이별대목 초암 ~내행차나온다 3. 기생중안향이 4. 쑥대머리 5 어사상봉대목으로 약 70분간 이윤아만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애절함으로‘춘향가’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고수로는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명고부 국무총리상 수상 자인 최재구가 함께한다.또한 최혜진 목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이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아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김승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은“특히 이번무대는 대전의 차세대 소리꾼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원의 국악연주단 이윤아씨의 무대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2020 전통 시리즈 젊은 소리꾼 초정 판소리 다섯마당

07.30 (목)19:30	08.20 (목)19:30	09.03 (목)19:30	10.29 (목)19:30	11.26 (목)19:30
유태평양 수궁가	전 태 원 심청가	이 진 우 흥보가	이 윤 아 춘향가	김 보 립 적벽가

장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 주최 김 양 숙 명창·명고대회 후원 TJB 대전방송 후원 2020 전통 시리즈 젊은 소리꾼 초정 판소리 다섯마당

예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www.daejeon.go.kr/music 인터파크 티켓.interpark.com 1544-1555 문의 042270-8500

안성시 박두진문학관, 특별기획전시 ‘시작’ 개최

상설전시에서 보기 힘들었던 희귀자료 원본 페이지 공개

안성시 박두진문학관은 오는 30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박두진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 ‘시작’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안성 출신 해산 박두진 시인의 등단 전후 출판되었던 시집을 통해 습작기 문학적 특징과 등단 이후 문학적 변모 과정을 소개한다.전시에 소개되는 자료는 ‘청록집’, ‘문장’ 등 박두진 시인의 등단 전후로 발간된 문학 자료와 상설전시실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 1939년 등단 이후 시를 쓰고 문학을 공부할 때 직접 보던 자료들의 내부 페이지 및 필사 원고 등 30여 점으로 100부만 발간해 현재 국내 5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백석의 ‘사슴’, 박두진을 신인추천제로 등단

시킨 정지용의 ‘정지용 시집’, 서정주의 최초 시집 ‘화사집’ 등 예술적,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의 세부 내용이 다수 전시된다.특히 이번 특별전시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전시구성에 참여하는 체험형 전시를 선보여, 박두진 시 낭송·디지털 필사·필사작품 전시 등을 관람객과 함께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2020년 박두진문학관 특별기획전시 ‘시작’은 단순히 교과서나 전시실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시집·소설집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가가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전시 개막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박두진문학관에서 진행되며 안성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남주기자

2020 박두진문학관 특별전

시를 짓다

2020. 10. 30

2021. 5. 31

안성시 박두진문학관

철원의 가을 합창으로 만끽하자 철원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개최

10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10.31. 오후 4시 화강문화센터 개최

철원의 가을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철원의 가을 철원소년소녀합창단’공연이 오는 31일 오후4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화강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강원도·철원군은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선정해 공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원도 ‘문화해달’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인 1시간 대표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공연은 지난 5월 개최된 ‘철원의 봄·태봉합창단’ 공연의 뒤를 잇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의 동요 중창부터 장혜원 지휘자의 소프라노 공연까지 함께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관람료는 무료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사전예매 접수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해 진행할 예정이다.관람객은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확인 후 입장 가능하다.

김영근기자

철원소년소녀합창단

2020. 10. 31. (토) 16:00

화강문화센터 야외공연장(2층)

■사건예매:10.28.(수)09시부터 화강문화센터 홈페이지 예매(무료 공연)
■문의: 화강문화센터 홈페이지 / 관광문화체육과 450-4894

부천시, ‘워라벨 랜선토크쇼’로 여성친화가치 확산

오는 28일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랜선토크쇼 개최

‘2020 워라벨페스티벌 랜선 토크쇼’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천시여성회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 된다.부천시 여성친화사업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토크쇼는 부천시와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가 공동 주최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소통의 장에서 패널들은 ‘코로나19 시대, 부천시민의 일과 삶’을 주제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부천시민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눈다.특히 패널 중에는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기능을 위해 여전히 대면 현장에서 일하는 ‘코로

나19 필수 노동자’와 경영상황 악화에도 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이 참여해 변화된 일터와 삶을 현장에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날 토크쇼 1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돌봄 노동자’, ‘선별진료소에 간 방문간호사’, ‘1회용품의 습격, 미화 노동자’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후 ‘마스크를 끼고 달리는 운수 노동자’와‘해고 없이 회사를 지키고 싶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부에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크쇼를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를 응원한다”며 “좋은 사례를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2020 워라벨 랜선 토크쇼

‘코로나 19 시대, 부천시민의 일과 삶’

2020. 10. 28 (수) 14:00

YouTube LIVE

코로나 19 시대, 일과 삶 당사자 토크쇼 “코로나19와 나의 일과 삶”

주관 새로운 경기·경제발전 비상

주최 부천상공회의소

트로트와 국악의 흥겨운 만남

국악에 스미다 시리즈 Vol.3

2020 여주시중문화재단 기획공연

진성 & 남상일 희희낙락 콘서트

2020. 10. 24. (토) 오후 5시

세종국악당

‘진성&남상일의 희희낙락 콘서트’

여주시중문화재단이 오는 10월 24일에 ‘진성 & 남상일의 희희낙락 콘서트’를 세종국악당에서 선보인다.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여주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진성 & 남상일의 희희낙락 콘서트’는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에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가수 진성이 출연한다.여기에 화려한 입담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국악인 남상일 국립창극단 단원이자 국악계 명품조연 서정금, 가야금과 판소리, 모두 출중한 젊은 국악인 최예림과 라이브 밴드가 함께해 흥겨운 무대를 만든다.미스터 트롯의 멤버들도 사랑

하는 멘토 진성은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태클을 걸지마’ 등의 히트곡을, 남상일은 ‘장타령’, ‘홍보가 중박타는 대목’ 등의 민요를 부를 예정이다.서정금은 특유의 깊은 소리로 ‘쑥대머리’, ‘엄마아리랑’ 등을, 최예림은 ‘아리랑 목동’, ‘꽃타령’ 등을 선사한다.여주시중문화재단 김진오 이사장은 “세종국악당을 5개월 만에 재개관하며 중장년층의 여주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길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한 좌석 띄어앉기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어 아쉽지만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재단 네이버 TV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 여주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채워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상찬기자

제19회 김포예술제’ 온라인 공연 개최

문화예술축제, 온라인으로 즐겨요

김포 지역예술인들이 벌이는 김포시 대표 지역문화축제인 ‘제19회 김포예술제’가 오는 24일 김포아트홀리지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 공연으로 개최된다.김포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포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제19회 김포예술제는 지역예술인들의 최대 예술축제로 지역예술인들의 국악, 무용, 연극, 음악 및 전시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초대가수 김필이 함께한다.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며 개최되며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실시간 생방송 유튜브로 송출됨에 따라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정하영 김포시장은 “지역 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한 이번 김포예술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됨에 따라 시·공간 제약없이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2020 19th 김포 예술제

10.24

YouTube LIVE 14:30 ~ 17:00

‘김포예술’ 유튜브 채널

특별출연 가수 김필

공역 MC 이재영 (사)김포문화협회 피겨선양팀 케미 (사)김포문화협회 회장 / (사)김포연극협회 브라바시모 (사)김포국악협회 민요·사물 / 성악 피날레 김포시낭송협회 시극 / 지역예술인 가수

전시 (사)김포미술협회 / (사)김포문인협회 / (사)김포사진작가협회

동문건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23일 견본주택 오픈

동문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3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견본주택을 23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는 지하 1층 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1134가구다. 타입 별 분양 가구 수는 전용면적 △59㎡A 218가구 △59㎡B 346가구 △59㎡C 166가구 △74㎡ 250가구 △84㎡ 154가구 등이다. 청약 일정은 11월 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화) 1순위 해당지역, 4일(수) 1순위 기타지역 접수를 받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3.3㎡ 당 900만 원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20%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50% 취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수)이며, 정당 계약은 11월 23일(월)부터 26일(목)까지 4일간 진행된다.

신촌지구는 동문건설이 총 5개 블록에 4833가구의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아파트를 짓는 브랜드 타운으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

닝힐 맘시티 2차는 평택 최초로 전체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후분양 아파트이다. 공사 진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뢰감이 높고, 무엇보다 내년 8월이면 입주 가능하다.

단지 내 중심상업시설 맘스'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5층 4개동에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다. 특히 이곳에 서울 강남 대치동 명문학원 타운을 유치해, 입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작년 9월 개교한 평택새빛초교가 있으며,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평택에서 서울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됐고, 지하철 1호선과 SRT가 정차하는 지제역도 가까워 서울 진입이 빨라졌다.

길 건너편에는 쌍용자동차 본사가 있으며, 종합물류단지, 평택 일반산업단지, 안성원곡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도 많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는 확보된 총 6개의 반도체 공장 부지 가운데 절반이 가동 중이거나 공사 중이다. 약 483만㎡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도 한창이다.

단지 설계도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은 물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조성했다. 평면은 4베이 구조(일부 제외)로 개방감이 돋보이며, 전 가구 파우더 룸을 제공하고, 주방과 침실, 거실 등 집 안 곳곳에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했다.

맘스카페, 키즈카페,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많다. 특히 지상 1층에는 영·유아를 보살필 수 있는 보육실도 조성했다. 피트니스센터, GX룸, 멀티룸,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등 여가와 취미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했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10-1 일대에 있으며, 코로나19로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

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http://ptmom2-dmapt.c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031-651-7733

김남주/기자

